

KORDI ISSUE PAPER



2023-1

발행일 2023.7.10.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의 10년 전후 변화 특성과 시사점 - '12년, '22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 가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kwkim@kordi.or.kr)

요약

- 본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10년 전후 특성과 인식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둬.
- 이를 위해 '12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5,08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경로, 최장 종사직업 및 고용형태,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희망 근로일수 및 시간, 급여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의견 등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음.
-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수요층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정보접근성 제고, 인적자본으로서의 노인일자리사업 가치 창출, 직무중심 사업유형 재편 및 활동방식 선택권 확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통계자료 구축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을 제안함.

들어가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 규모는 '04년 2만5천명을 목표로 시작하여 '23년 현재 88만3천명으로 약 35.3배 증가하였고, 예산은 국비기준 '04년 219억 원에서 '23년 1조 5,400억 원으로 약 72.3배 증가함.

▷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특성도 점차 다양화됨. 10년 전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분포를 보면, 성별 분포는 비슷하나, 연령은 80세 이상 고령층이 증가하고,

고졸 이상 교육수준을 지닌 참여자가 늘었으며, 참여 동기는 경제적 도움 외 다양한 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이 증가하였음(〈표 1 참조〉).

- ▷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 변화는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된 참여기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건강은 양호하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우선 참여하므로 고령층 전반의 특성과는 다른 경향을 띠 수 있음.

〈표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2012, 2022년)

(단위: %)

구분	2012년	2022년	구분	2012년	2022년
성별	269,064 (100.0)	971,475 (100.0)	교육수준별	259,194 (100.0)	583,286 (100.0)
남성	33.8	32.8	무학	22.4	14.5
여성	66.2	67.2	초졸	41.1	42.5
연령별	269,064 (100.0)	971,475 (100.0)	중졸	15.5	21.2
64세 이하	4.6	6.8	고졸	12.2	16.8
65~69세	20.0	15.7	대졸 이상	5.2	5.0
70~74세	38.7	24.7	참여 동기	265,445 (100.0)	140,984 (100.0)
75~79세	27.2	26.0	경제적 도움	85.9	69.9
80~84세	8.0	20.5	자기 발전	3.8	5.4
85~89세	1.3	5.7	사회 참여	5.8	14.4
90세 이상	0.1	0.6	시간활용 및 건강증진	3.5	3.8
			자원봉사 및 기타	1.0	6.4

주: 교육수준, 참여 동기는 전체 참여자 중 응답자 일부 수치임.

자료: 2012년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2023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 함.

- ▣ 본고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대상의 특성과 그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12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10년 전후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임. 초기에는 참여노인과 운영기관 실태조사를 나누어 진행되다가, '13년부터 통합하여 실시함. '22년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승인 된 후 실시된 첫 번째 조사임(〈표 2〉 참조).

〈표 2〉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추진 연혁

연도	참여노인 실태조사	운영기관 실태조사	연도	실태조사
2007	2,987명 표본조사	914개 기관 전수조사	2013	2,022명 표본조사, 602개 기관 표본조사
2010	1,500명 표본조사	-	2016	2,500명 표본조사, 600개 기관 표본조사
2011	-	1,213개 기관 전수조사	2019	3,086명 표본조사, 747개 기관 표본조사
2012	2,005명 표본조사	-	2022	3,500명 표본조사 (참여자 3,000명, 대기자 500명)

본 고에서 활용한 '12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자료의 세부 내용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분석 대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으로서 각 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에 참여한 '12년 2,005명, '22년 3,078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음(〈표 3 참조〉).

〈표 3〉 분석 대상 자료의 일반적 현황

(n= '12년 2,005, '22년 3,078, 단위: %)

구분	전체	'12년	'22년	구분	전체	'12년	'22년
성별				교육수준			
남성	36.8	34.7	38.2	무학	14.9	22.2	10.0
여성	63.2	65.3	61.8	초등학교 졸업	33.4	39.5	29.4
연령				중학교 졸업	20.0	17.1	21.9
60~69세	32.7	28.3	35.5	고등학교 졸업	22.7	13.0	29.0
70~79세	53.6	62.8	47.7	대학(교) 이상	9.0	8.1	9.6
80세 이상	13.7	8.9	16.8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평균(sd)	72.45 (6.13)	72.47 (5.35)	72.44 (6.58)	공익활동	58.6	76.9	46.8
거주 지역				사회서비스형	9.4	-	15.5
시지역	41.1	39.8	42.0	시장형사업단	11.8	12.8	11.1
구지역	39.6	40.4	39.0	취업알선형	12.3	10.3	13.5
군지역	19.3	19.9	19.0	시니어인턴십	6.6	-	10.9
결혼상태				고령자친화기업	1.3	-	2.2
기혼(사실혼)	59.7	55.1	62.7	수행기관 유형			
이혼, 별거, 사별	40.1	44.8	36.9	지자체	11.8	21.0	5.8
미혼	0.3	0.1	0.4	시니어클럽	31.5	21.8	37.8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23.8	33.8	17.5
				대한노인회	16.7	14.8	17.9
				기타	16.2	8.6	21.0

주 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12년 공익활동은 당시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을 포함한 것임.
 2) 본 고의 목적에 따라 원자료의 일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므로 각 연도 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자료: 각 연도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 (분석방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제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정, t 검정, ANOVA를 통한 F 검정 및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함. 구체적인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12년, '22년 참여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교차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특성을 분석함.
- 둘째, '12년, '22년 참여자의 최장 종사 직업, 최장 고용형태 등 경제활동 특성을 비교 분석함. 또한 구체적으로 교차분석을 통해 이전 경제활동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특성을 분석함.
- 셋째, '12년, '22년 참여자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및 희망 근로일 수, 근로시간, 급여액을 비교 분석함. 또한 구체적으로 교차분석, t 검정을 통해 이전 경제활동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특성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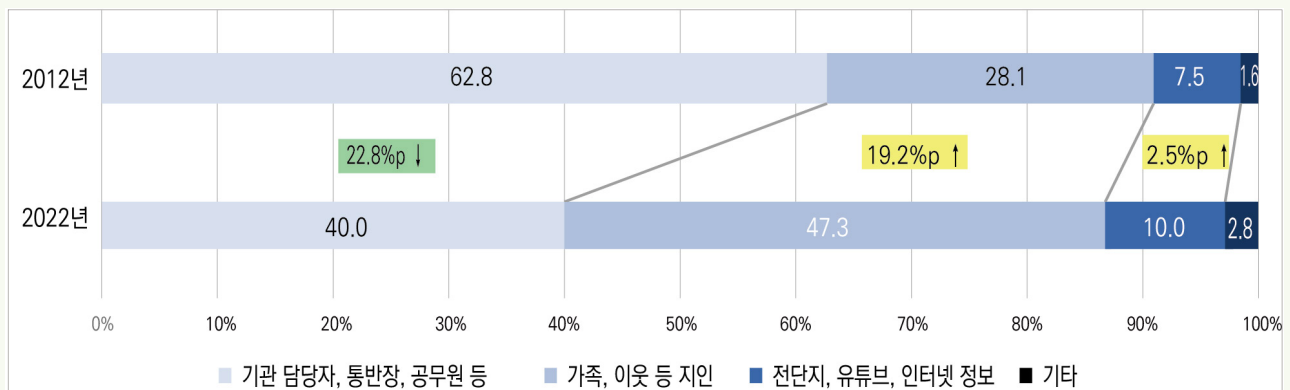
- 넷째, '22년 참여자의 희망 근로일 수와 근로시간을 교차하여 집중 분포된 수요 특성을 분석함. 집중 수요로 도출된 네 집단(주3일×일3시간 이내, 주3일×일4시간 이상, 주5일×일3시간 이내, 주5일×일4시간 이상)의 제 특성을 χ^2 검정, F 검정 및 Scheffe 사후 검정을 통해 분석함.
- 다섯째, '12년, '22년 참여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 의식을 비교 분석함. 또한 구체적으로 교차분석, t 검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 의식에 대한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업유형별 특성을 분석함.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로

-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경로¹⁾는 '가족, 이웃 등'을 통한 참여가 47.3%로 가장 높음. 10년 전보다 '가족, 이웃 등', '홍보물(전단지, 유튜브, 인터넷 정보)'에 의한 참여는 각각 19.2%p, 2.5%p 증가하였고, '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을 통한 참여는 22.8%p 감소함([그림 1] 참조).

[그림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로('12, '22년)

(n=5,083, 단위: %)



-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로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2] 참조).

▷ (참여 경로;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남성, 여성 노인의 참여 경로는 지인(42.2%, 50.4%), 담당자(39.1%, 40.5%), 인터넷 정보 등(14.5%, 7.3%) 순임.

- 남성은 여성보다 인터넷 정보를 통한 참여 비중이 2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남녀 각각 지인(21.3%p, 18.4%p), 인터넷 정보 등(3.4%p, 1.7%p)을 통한 참여는 증가, 담당자 (-26.9%p, -20.6%p)를 통한 참여 비중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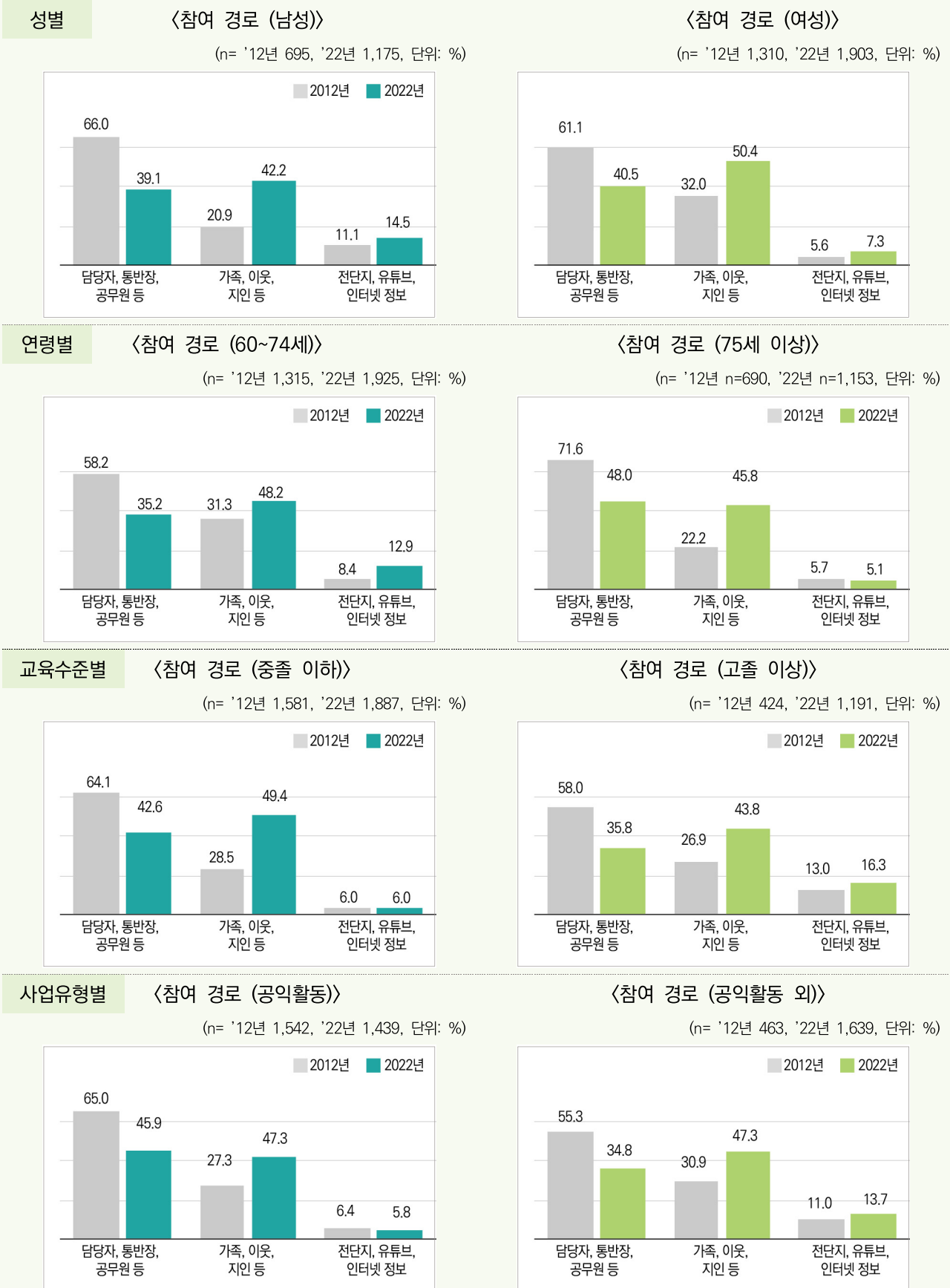
1) '12년 문항 A2 "귀하는 처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22년 문항 A1 "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응답범주) ① 기관 담당자, 통반장, 공무원 등('12년 이용하고 있던 기관(경로당, 복지관 등), 지역 내 통·반장 또는 이장,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 '22년 이용하던 기관(경로당, 복지관 등) 담당자를 통해, 지역 내 통·반장, 이장, 담당 공무원을 통해), ② 가족, 이웃 등 지인('12년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22년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을 통해), ③ 전단지, 유튜브, 인터넷 정보('12년 시군구(읍면동) 게시판 및 리플렛, 동네 또는 길거리 현수막, 인터넷,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지역소식지 또는 신문, '22년 TV, 라디오,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을 통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를 통해), ④ 기타('12년 기타, '22년 기타)

- ▶ (참여 경로;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74세의 참여 경로는 지인(48.2%), 담당자(35.2%), 인터넷 정보 등(12.9%) 순임. 75세 이상은 담당자(48.0%), 지인(45.8%), 인터넷 정보 등(5.1%) 순임.
 - 60~74세는 75세 이상 집단보다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한 참여가 2.5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60~74세, 75세 이상 각각 지인을 통한 참여 비중은 증가(16.9%p, 23.6%p)하였고, 담당자를 통한 참여 비중은 감소(-23.0%p, -23.6%p)함.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한 참여는 60~74세는 증가(4.5%p), 75세 이상은 감소(-0.6%p)함.

- ▶ (참여 경로;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노인의 참여 경로는 지인(49.4%, 43.8%), 담당자(42.6%, 35.8%), 인터넷 정보 등(6.0%, 16.3%) 순임.
 - 고졸 이상은 중졸 이하 집단보다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한 참여가 2.7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중졸 이하, 고졸 이상 집단 각각 지인을 통한 참여 비중은 증가(20.9%p, 16.9%p)하였고, 담당자를 통한 참여 비중은 감소(-21.5%p, -22.2%p)함.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한 참여는 고졸 이상 집단에서만 증가(3.3%p)함.

- ▶ (참여 경로; 사업유형별) '22년 공익활동, 그 외 사업유형에 참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 경로는 각각 지인(47.9%, 34.8%), 담당자(47.3%, 47.3%), 인터넷 정보 등(5.8%, 13.7%) 순임.
 - 공익활동 외 다른 사업유형 참여노인은 공익활동 참여노인보다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한 참여 비중이 2.4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공익활동, 그 외 사업유형 참여집단 각각 지인을 통한 참여 비중은 증가(20.0%p, 16.4%p)하였고, 담당자를 통한 참여 비중은 감소(-19.1%p, -20.5%p)함.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한 참여는 공익활동 참여자는 감소(-0.6%p)하였고, 그 외 사업유형 참여자는 증가(2.7%p)함.

[그림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참여 경로('12,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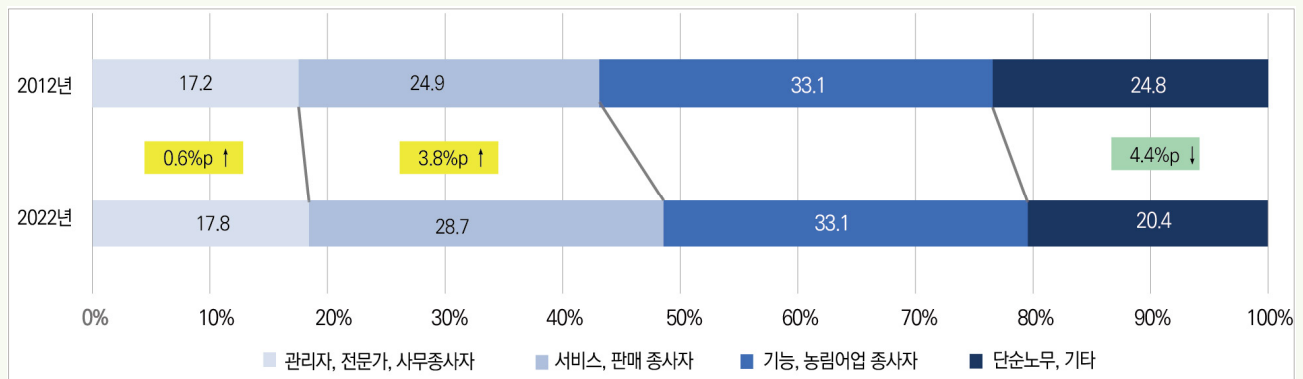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제활동 특성

1)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장 종사 직업²⁾은 '기능 및 농업·어업 종사자'가 33.1%로 가장 많음. '기능 및 농업·어업 종사자'는 10년 전과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판매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는 각각 10년 전보다 3.8%p, 0.6%p 증가, '단순노무 등'은 4.4%p 감소함(그림 3) 참조).

[그림 3] 가장 종사 직업('12, '22년)

(n=4,105, 단위: %)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장 종사 직업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4) 참조).

▷ (가장 종사 직업: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남성노인의 가장 종사 직업은 기능 및 농림어업(42.1%), 관리자·사무(29.0%), 서비스·판매(16.1%), 단순노무 등(12.8%) 순임. 여성노인의 가장 종사 직업은 서비스·판매(38.8%), 단순노무 등(26.6%), 기능 및 농림어업(25.8%), 관리자·사무(8.8%) 순임.

- 남성은 여성보다 관리자·사무, 기능 및 농림어업 비중이 각각 3.3배, 1.6배 더 높으며, 여성은 단순노무 등, 서비스·판매 비중이 각각 2.1배, 1.6배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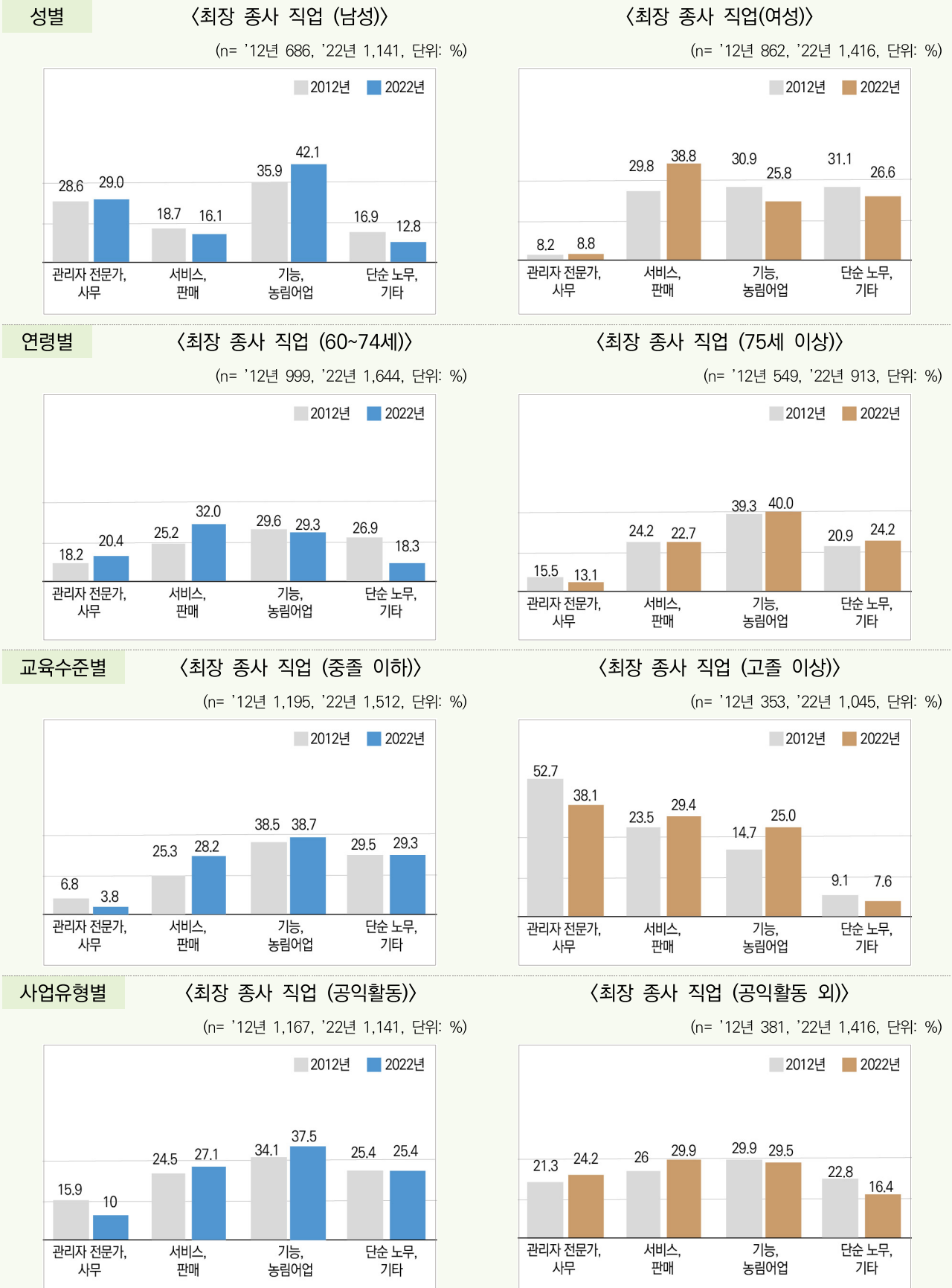
- 10년 전보다 남녀 각각 단순노무 등 비중은 감소(-4.1%p, 4.5%p), 관리자·사무 비중은 소폭 증가(0.4%p, 0.6%p)함.

▷ (가장 종사 직업: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74세의 가장 종사 직업은 서비스·판매(32.0%), 기능 및 농림어업(29.3%), 관리자·사무(20.4%), 단순노무 등(18.3%) 순임. 75세 이상은 기능 및 농림어업(40.0%), 단순노무 등(24.2%), 서비스·판매(22.7%), 관리자·사무(13.1%) 순임.

2) '12년 문항 I1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22년 문항 C9-1 "귀하가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응답범주) ①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12년 의회위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22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② 서비스, 판매 종사자('12년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22년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③ 기능, 농림어업 종사자('12년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22년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④ 단순노무, 기타('12년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22년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 60~74세는 75세 이상 집단보다 관리자·사무, 서비스·판매 비중이 각각 1.6배, 1.4배 더 높음. 75세 이상 집단은 기능 및 농림어업, 단순노무 등 비중이 각각 1.4배, 1.3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60~74세 집단은 관리자·사무, 서비스·판매 종사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중이 증가(2.2%p, 6.8%p)하였음. 75세 이상 집단은 기능 및 농림어업, 단순노무 등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중이 10년 전보다 더 증가(0.7%p, 3.3%p)함.
- ▷ (최장 종사 직업: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최장 종사 직업은 기능 및 농림어업(38.7%), 단순노무 등(29.3%), 서비스·판매(28.2%), 관리자·사무(3.8%) 순임. 고졸 이상 집단의 최장 종사 직업은 관리자·사무(38.1%), 서비스·판매(29.4%), 기능 및 농림어업(25.0%), 단순노무 등(7.6%) 순임.
- 고졸 이상은 중졸 이하 집단보다 관리자·사무 비중이 10배 더 높고, 중졸 이하 집단은 단순노무 등 비중이 3.9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중졸 이하, 고졸 이상 집단 각각 서비스·판매 종사 경험이 있는 참여자 비중은 증가(2.9%p, 5.9%p)하였고, 관리자·사무(-3.0%p, -14.6%p), 단순노무 등 비중은 감소(-0.2%p, -1.5%p)함.
- ▷ (최장 종사 직업: 사업유형별) '22년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최장 종사 직업은 기능 및 농림어업(37.5%), 서비스·판매(27.1%), 단순노무 등(25.4%), 관리자·사무(10.0%) 순으로 나타남. 공익활동 외 다른 사업 유형에 참여한 노인의 최장 종사 직업은 서비스·판매(29.9%), 기능 및 농림어업(29.5%), 관리자·사무(24.20%), 단순노무 등(16.4%) 순임.
- 공익활동 참여자는 그 외 다른 유형 참여자보다 기능 및 농림어업 종사 경험 비중이 1.3배 더 높으며, 관리자·사무 종사 경험이 2.4배 더 낮음.
 - 10년 전보다 공익활동 참여노인은 서비스·판매, 기능 및 농림어업 종사 경험을 가진 비중이 증가(2.6%p, 3.4%p)하였고, 공익활동 외 사업 유형에서는 관리자·사무, 서비스·판매 종사 경험을 가진 비중이 증가(2.9%p, 3.9%p)함.

[그림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최장 종사 직업('12,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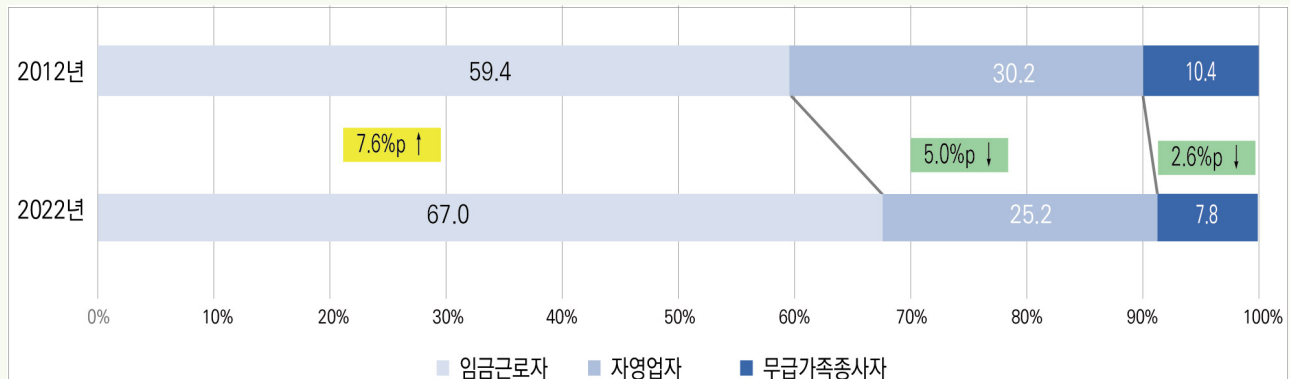


2) 가장 오래 종사한 고용형태

-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장 고용형태³⁾는 '임금근로자'가 67.0%로 가장 높음. 10년 전보다 '임금근로자'는 7.6%p 증가하였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5.0%p, 2.6%p 감소함([그림 5] 참조).

[그림 5] 가장 고용 형태('12, '22년)

(n=4,105, 단위: %)



-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가장 고용형태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6] 참조).

▷ (최장 고용형태: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남성, 여성 노인의 가장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 (72.8%, 62.3%), 자영업자(26.6%, 24.1%), 무급가족종사자(0.5%, 13.6%) 순임.

- 남성은 여성보다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2배, 1.1배 더 높고,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가 27.2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남녀 각각 임금근로자 비중은 증가(8.2%p, 7.0%p), 자영업자 비중 감소(-6.8%p, -3.5%p),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감소(-1.5%p, -3.5%p)함

▷ (최장 고용형태: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74세, 75세 이상 노인의 가장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71.4%, 59.1%), 자영업자(23.7%, 28.0%), 무급가족종사자(5.0%, 12.8%) 순임.

- 60~74세는 75세 이상 집단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1.2배 더 높고,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1.2배, 2.6배 더 낮음.
- 10년 전보다 60~74세, 75세 이상 집단 각각 임금근로자 비중은 증가(7.0%p, 8.6%p)하였고, 자영업자 비중 감소(-3.4%p, -7.7%p),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감소(-3.5%p, -1.0%p) 하였음.

3) '12년 문항 I1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 고용형태", '22년 문항 C9-2 "귀하가 일생동안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응답범주) ① 임금근로자('12년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 고용주, '22년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12년 자영업자, '22년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12년 무급가족종사자, '22년 무급가족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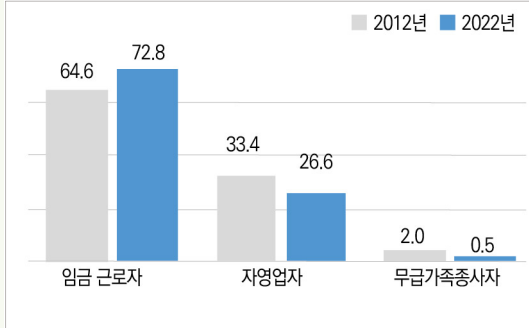
- ▷ (최장 고용형태: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한 중졸 이하, 고졸 이상 노인의 최장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61.5%, 74.9), 자영업자(26.2%, 23.8%), 무급가족종사자(12.3%, 1.2%) 순임.
- 고졸 이상은 중졸 이하 집단보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1.2배 더 높고, 중졸 이하 집단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1.1배, 10.3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중졸 이하, 고졸 이상 집단 각각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감소(-0.6%p, -0.8%p)하였음. 임금근로자 비중은 고졸 이상 집단에서 증가(7.3%p) 하였고, 자영업자 비중은 중졸 이하 집단에서 증가(2.8%p) 하였음.
- ▷ (최장 고용형태: 사업유형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그 외 사업유형 참여자의 최장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59.8%, 72.8%), 자영업자(27.7%, 32.2%), 무급가족종사자(12.5%, 4.0%) 순임.
- 공익활동 참여자는 그 외 다른 유형 참여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3.1배 더 높고,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1.2배 더 낮음.
 - 10년 전보다 공익활동, 그 외 사업유형 참여 집단 모두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2.4%p, 7.2%p)하였음.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공익활동 집단에서 증가(1.5%p)하였고, 자영업자 비중은 그 외 사업유형 참여 집단에서 증가(6.5%p) 하였음.

[그림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최장 고용 형태('12, '22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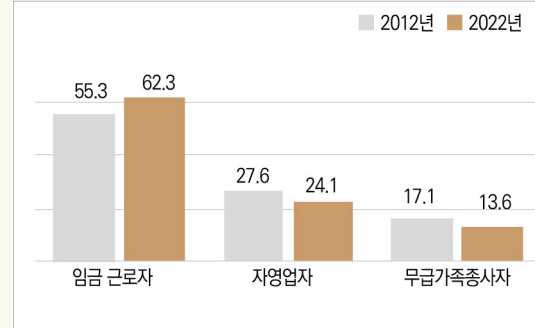
〈 종사 고용형태(남성) 〉

(n= '12년 686, '22년 1,141. 단위: %)



〈 종사 고용형태(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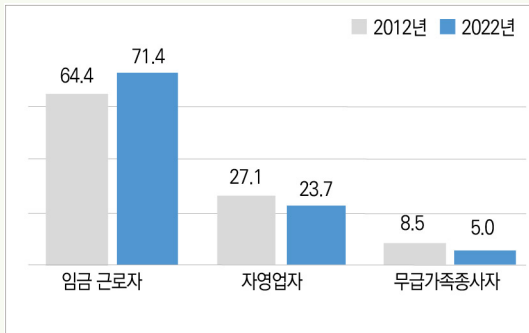
(n= '12년 862, '22년 1,416. 단위: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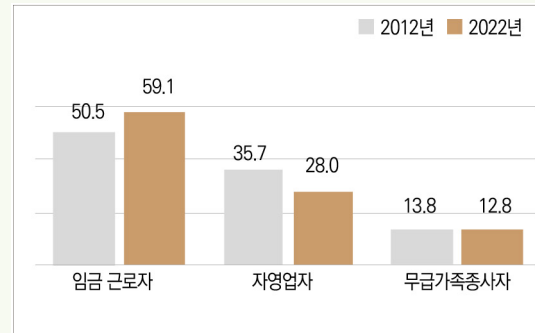
〈 종사 고용형태(60~74세) 〉

(n= '12년 999, '22년 1,644. 단위: %)



〈 종사 고용형태(75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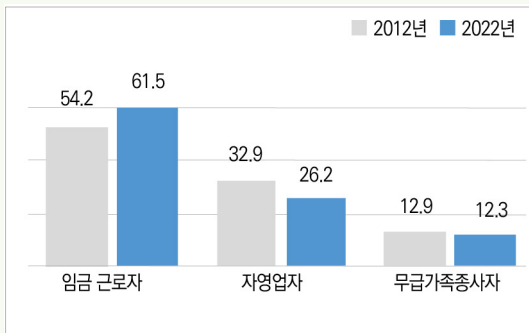
(n= '12년 549, '22년 913. 단위: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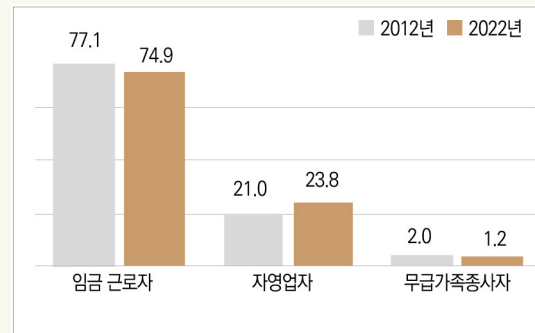
〈 종사 고용형태(중졸 이하) 〉

(n= '12년 1,195, '22년 1,512. 단위: %)



〈 종사 고용형태(고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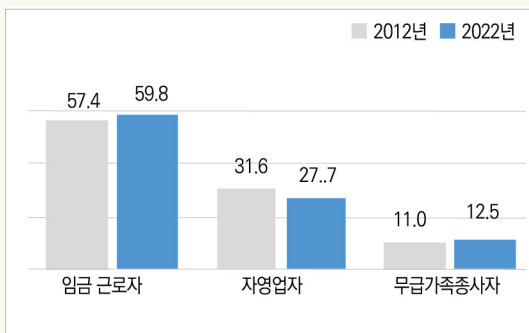
(n= '12년 353, '22년 1,045. 단위: %)



사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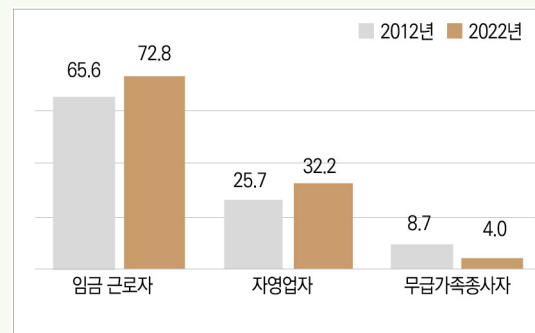
〈 종사 고용형태(공익활동) 〉

(n= '12년 1,167, '22년 1,141. 단위: %)



〈 종사 고용형태(공익활동 외) 〉

(n= '12년 381, '22년 1,41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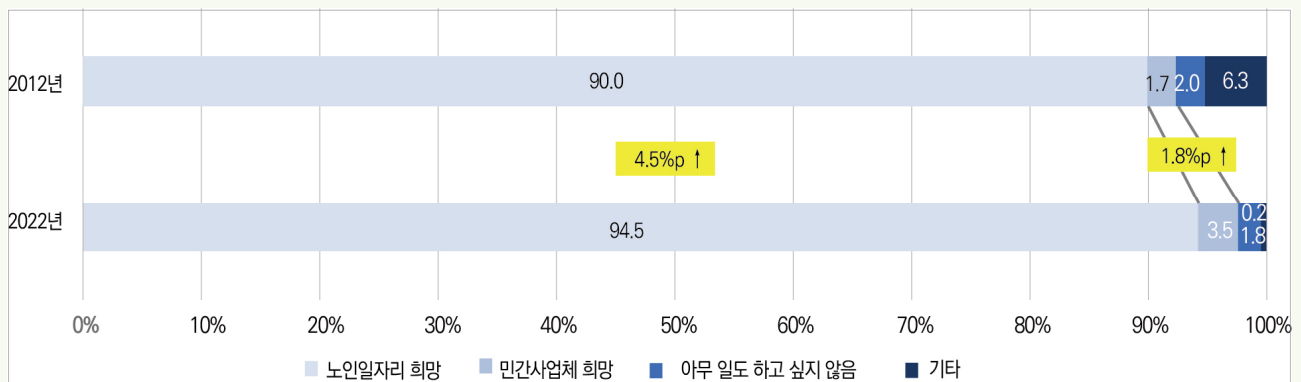
3.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및 근로 희망

1) 향후 참여 의향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⁴⁾은 94.5%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3.5%,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음' 1.8%, '기타' 0.2% 순으로 나타남. 10년 전보다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은 4.5%p 더 늘었고,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도 1.8%p 증가함(그림 7 참조).

[그림 7]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등 참여 의향('12, '22년)

(n=4,712, 단위: %)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향후 참여 의향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8 참조).

▷ (참여 의향: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향후 참여 의향은 남녀 각각 91.4%, 96.4%로 높게 나타남. 또한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은 6.4%, 1.7% 이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남녀 각각 1.8%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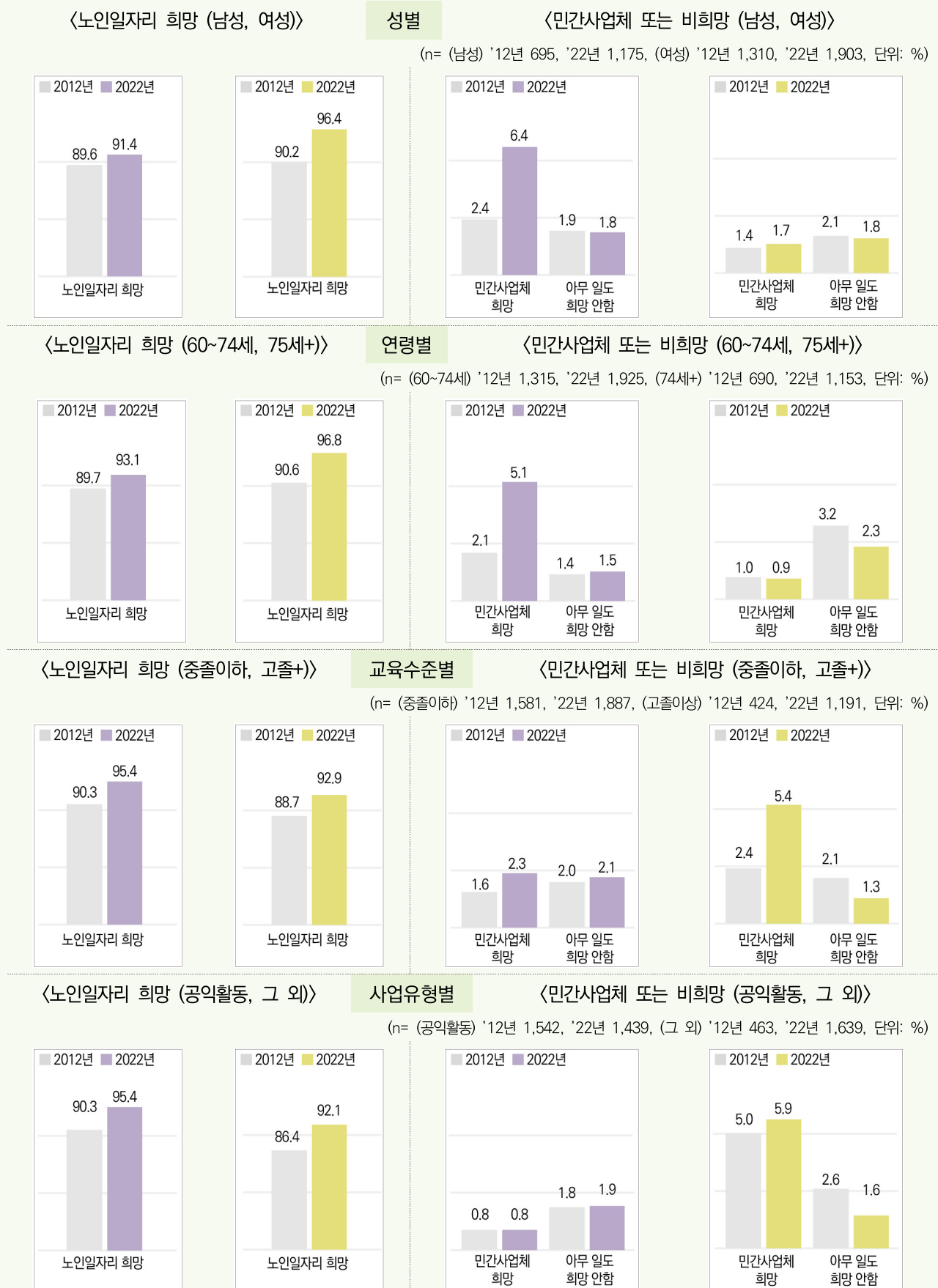
- 남성은 여성보다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이 3.8배 더 높고, 여성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비중이 1.1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비중은 남녀 각각 증가(1.8%p, 6.2%p) 하였으며,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도 증가(4.0%p, 0.3%p)함. 향후에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남녀 모두 감소(-0.1%p, -0.3%p)함.

▷ (참여 의향: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74세, 75세 이상 노인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은 각각 93.1%, 96.8%로 높게 나타남.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은 5.1%, 0.9% 이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1.5%, 2.3%임.

4) '12년 문항 I7 "귀하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22년 문항 A5 "귀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하기를 희망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응답범주) ① 노인일자리 희망('12년 현 노인일자리를 계속하기를 희망함, '22년 예), ② 민간사업체 희망('12년 노인일자리가 아닌 다른 일을 희망함, '22년 노인일자리가 아닌 민간사업체 등에서 일하고 싶음), ③ 아무일도 하고 싶지 않음('12년 일을 그만두고 싶음, '22년 아무일도 하고 싶지 않음), ④ 기타('12년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기를 희망함, '22년 기타)

- 60~74세는 75세 이상 집단보다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이 5.7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비중은 60~74세, 75세 이상 집단 각각 증가(3.4%p, 6.2%p) 하였음.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은 60~74세 집단에서 증가(3.0%p) 하였으며, 75세 이상 집단에서는 소폭 감소(-0.1%p)함.
- ▷ (참여 의향: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졸 이하, 고졸 이상 집단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은 각각 95.4%, 92.9%로 높게 나타남.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은 2.3%, 5.4% 이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2.1%, 1.3%임.
- 고졸 이상은 중졸 이하 집단보다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이 2.4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비중은 중졸 이하, 고졸 이상 집단 각각 증가(5.1%p, 4.2%p) 하였으며,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도 증가(0.7%p, 3.0%p)함.
- ▷ (참여 의향: 사업유형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은 공익활동 참여자, 그 외 사업유형 참여자 각각 97.2%, 92.1%로 높게 나타남.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은 0.8%, 5.9% 이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1.9%, 1.6%임.
- 공익활동 외 사업 유형에 참여한 노인은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이 공익활동 참여자보다 7.4배 더 높음.
 - 10년 전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 비중은 공익활동 참여자, 그 외 사업유형 참여자 집단 각각 증가(6.1%p, 5.7%p)하였고, 민간사업체 근로 희망 비중은 공익활동 외 다른 사업유형 참여자 집단에서만 증가(0.9%p)함.

[그림 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향후 참여 의향 '12,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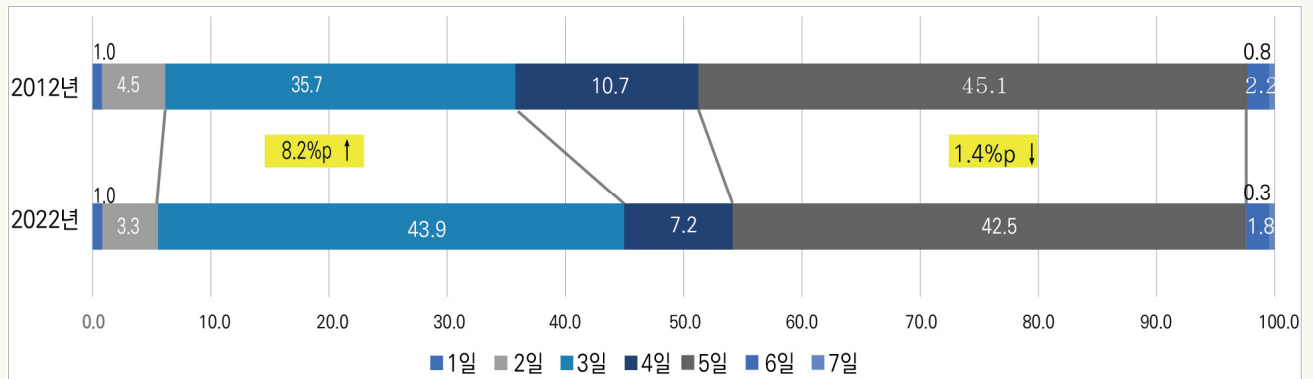
2) 희망 근로일수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향후 희망 근로일수⁵⁾는 주 3일 또는 주 5일로 선호 집단으로 양분되는 다봉(multi-peaked)형 선호 특성을 보임. 이러한 선호 경향은 10년 전보다 더 뚜렷해졌는데, 주 3일을 선호하는 의견은 43.9%로 10년 전보다 8.2%p 더 늘었고, 주 5일을 선호하는 의견은 42.5%로 10년 전보다 1.4%p 증가함(그림 9), <표 4> 참조).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평균 희망 근로일수는 주 3.93일(SD=1.09)으로 10년 전('12년 주 4.04일(SD=1.12))보다 평균 0.11일이 감소함($t=-3.199, p<.01$).

[그림 9] 희망 근로일 수('12, '22년)

(n=4,575, 단위: %, 일)



<표 4> 향후 노인일자리사업(또는 민간사업체) 희망 근로일수

(n=4,575, 단위: 일)

구분		전체	2012년 (n=1,559)	2022년 (n=3,016)	t (2022년)
전체 (sd)		3.97 (1.10)	4.04 (1.12)	3.93 (1.09)	-3.199**
성별	남성	4.11 (1.11)	4.06 (1.17)	4.13 (1.08)	8.155
	여성	3.89 (1.08)	4.03 (1.09)	3.81 (1.07)	
연령별	60~74세	4.15 (1.09)	4.08 (1.12)	4.20 (1.07)	18.765***
	75세 이상	3.65 (1.03)	3.97 (1.12)	3.49 (0.9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3.88 (1.08)	4.07 (1.08)	3.75 (1.06)	-11.538
	고졸 이상	4.15 (1.11)	3.92 (1.13)	4.21 (1.06)	
사업유형별	공익활동	3.64 (1.01)	3.94 (1.09)	3.39 (0.87)	-29.346***
	그 외	4.41 (1.05)	4.41 (1.14)	4.41 (1.04)	

주: * p<.05, ** p<.01, *** p<.001

자료: 각 연도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5) '12년 문항 I7-2 "희망하는 근로일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22년 문항 A5-1, A5-2 "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1주일에 며칠?", "귀하는 노인일자리가 아닌 민간사업체 등에서 1주일에 며칠?"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응답범주) '12년 평일 __일, 주말 __일, '22년 노인일자리사업 __일, 회사, 기업, 자영업 등을 통해 1주일에 __일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 근로일수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10] 참조).

▷ (희망 근로일수: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남성노인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민간사업체 희망 근로일수는 주 5일(50.8%), 주 3일(33.8%) 순임. 여성 노인의 경우 반대로 주 3일(50.2%), 주 5일(37.3%) 순임.

- '22년 남성은 여성보다 주 5일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1.4배 더 높고, 여성은 주 3회 이내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1.5배 더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근로일수는 남성 주 4.13일(SD=1.08), 여성 주 3.81일(SD=1.07)으로 남성이 평균 0.32일 더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10년 전보다 남성은 주 5일 근무 이상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3.4%p)하였고, 여성은 주 3일 이내 희망 비중이 증가(12.6%p)함.

▷ (희망 근로일수: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74세 집단의 희망 근로일수는 주 5일(54.4%), 주 3일(31.7%) 순임. 75세 이상 집단은 반대로 주 3일(64.5%), 주 5일(22.5%) 순임.

- '22년 60~74세는 75세 이상 집단보다 주 5일 이상 희망하는 비중이 2.4배 더 높고, 75세 이상 집단은 주 3회 이내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1.9배 더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근로일수는 60~74세 주 4.20일(SD=1.07), 75세 이상 주 3.49일(SD=0.95)으로 60~74세 집단이 평균 0.71일 더 높음($t=18.765$, $p<.001$).
- 10년 전보다 60~74세 집단은 주 5일 근무 이상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7.7%p)하였고, 75세 이상은 주 3일 이내 희망 비중이 증가(24.7%p)함.

▷ (희망 근로일수: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졸 이하 집단의 향후 희망 근로일수는 주 3일(52.3%), 주 5일(34.2%) 순임. 고졸 이상 집단은 반대로 주 5일(55.5%), 주 3일(30.7%) 순임.

- '22년 중졸 이하 집단은 고졸 이상 집단보다 주 3일 이내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1.6배 더 높고, 고졸 이상 집단은 주 5일 이상 희망 비중이 1.6배 더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근로일수는 중졸 이하 주 3.75일(SD=1.06), 고졸 이상 주 4.21일(SD=1.06)으로 고졸 이상 집단이 평균 0.46일 더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10년 전보다 고졸 이상 집단은 주 5일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1.4%p)하였고, 주 3일 이내는 감소(-8.7%p)함. 중졸 이하 집단은 주 3일 이내 근무 희망 비중이 더 증가(16.3%p)했으며, 주 5일 이상은 감소(-12.3%p)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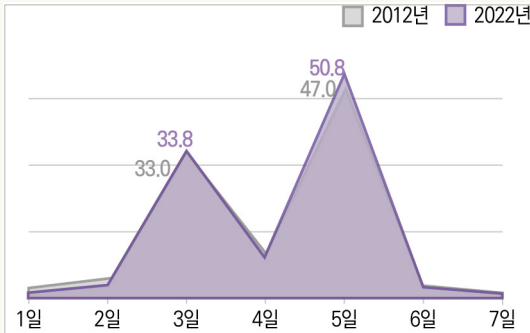
- ▷ (희망 근로일수: 사업유형별) '22년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희망 근로일수는 주 3일(69.1%), 주 5일(17.4%) 순임. 공익활동 외 다른 유형 참여노인은 반대로 주 5일(64.5%), 주 3일(21.8%) 순임.
- '22년 공익활동 참여노인은 그 외 다른 유형 참여자보다 주 3일 이내 근무 희망비중이 2.9배 더 높으며,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노인은 주 5일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3.8배 더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근로일수는 공익활동 참여자 주 3.39일(SD=0.87), 그 외 다른 유형 참여자 주 4.41일(SD=1.04)으로 공익활동 외 다른 유형 참여자 집단이 평균 1.02일 더 많음($t=-29.346$, $p<.001$).
 - 10년 전보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주 3일 이내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더 증가(28.8%p)했고, 주 5일 이상 희망 비중은 감소(-25.9%p)함.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자는 주 5일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증가(3.7%p)했으며, 주 3일 이내 근무 희망 비중은 감소(-1.7%p)함.

[그림 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희망 근로일 수('12, '22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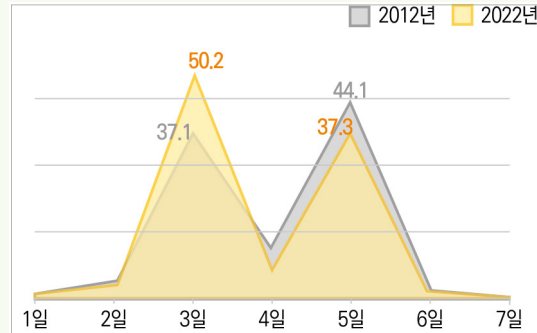
〈희망 근로일수 (남성)〉

(n='12년 530, '22년 1,149, 단위: %)



〈희망 근로일수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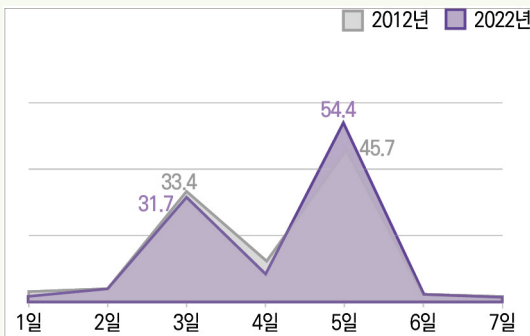
(n='12년 1,029, '22년 1,867, 단위: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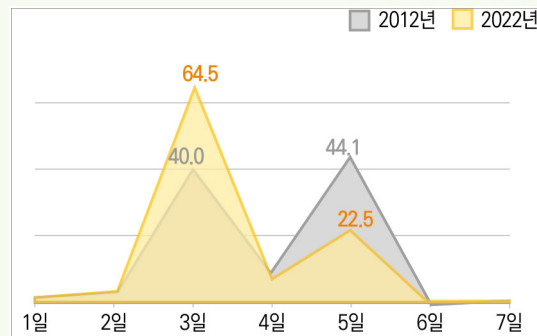
〈희망 근로일수 (60~74세)〉

(n='12년 1,012, '22년 1,890, 단위: %)



〈희망 근로일수 (7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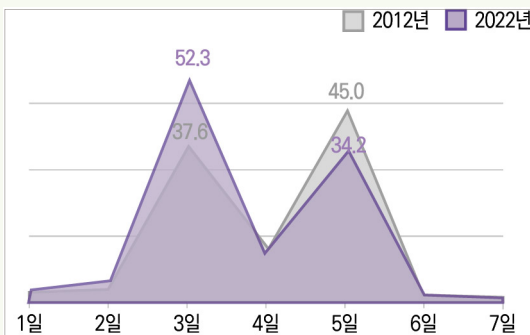
(n='12년 547, '22년 1,126, 단위: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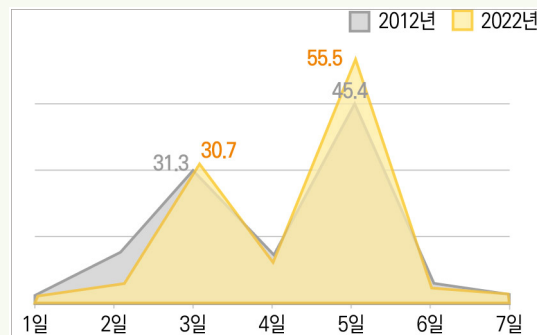
〈희망 근로일수 (중졸 이하)〉

(n='12년 1,220, '22년 1,845, 단위: %)



〈희망 근로일수 (고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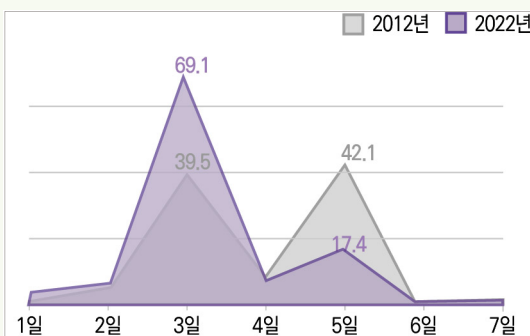
(n='12년 339, '22년 1,171, 단위: %)



사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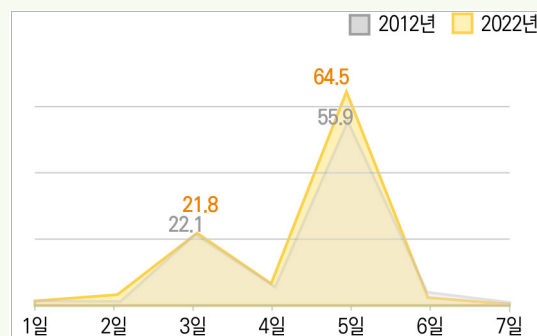
〈희망 근로일수 (공익활동)〉

(n='12년 1,219, '22년 1,410, 단위: %)



〈희망 근로일수 (공익활동 외)〉

(n='12년 340, '22년 1,60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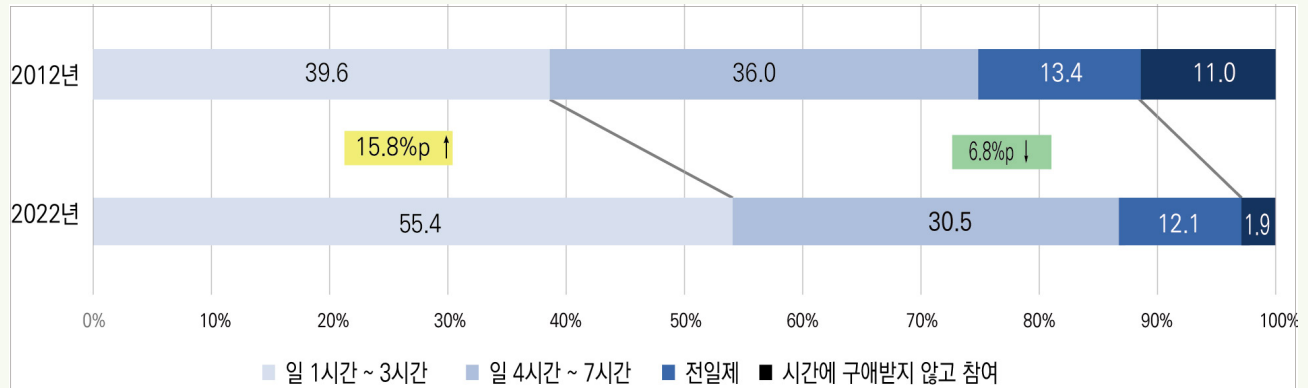


3) 희망 근로시간

-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향후 희망 근로시간⁶⁾은 구간별로 '일 1~3시간' 55.4%, '일 4~7시간' 30.5%, '전일제' 12.1%,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희망 1.9% 순으로 나타남. 10년 전보다 '일 1~3시간' 희망 비중은 15.8%p 더 늘었고, '일 4~7시간' 또는 '전일제'는 6.8%p 더 줄었음(그림 11) 참조.

[그림 11] 희망 근로시간('12, '22년)

(n=4,981, 단위: %, 시간)



-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 근로시간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12) 참조.

▷ (희망 근로시간: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민간사업체 희망 근로 시간은 남성, 여성 각각 일 1~3시간(40.2%, 64.8%), 일 4~7시간(30.9%, 30.3%), 전일제(24.5%, 4.4%)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5.6배 더 높으며, 여성은 일 1~3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1.6배 더 높음.
- 남성은 근로시간 수요 규모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10년 전보다 전일제, 일 1~3시간 희망 비율이 증가(8.5%p, 6.2%p)함. 여성은 10년 전보다 전일제, 일 4~7시간 희망 비율이 감소(-7.6%p, -4.9%p)하고, 일 1~3시간 비율이 증가(22.2%p)함.

▷ (희망 근로시간: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74세, 75세 이상 집단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민간사업체 희망 근로시간은 각각 일 1~3시간(43.5%, 75.4%), 일 4~7시간(35.8%, 21.7%), 전일제(17.8%, 2.5%) 순임.

6) '12년 문항 17-3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2년 문항 A5-1, A5-2 "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루에 몇 시간?", "귀하는 노인일자리가 아닌 민간사업체 등에서 하루에 몇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응답범주) ① 일 1시간~3시간('12년 1일 1~4시간미만 시간제, '22년 노인일자리사업, 회사, 기업, 자영업 하루 1~3시간 응답 해당자), ② 일 4시간~7시간('12년 1일 4~8시간미만 시간제, '22년 노인일자리사업, 회사, 기업, 자영업 하루 4~7시간 응답 해당자), ③ 전일제('12년 전일제, '22년 노인일자리사업, 회사, 기업, 자영업 하루 8시간 응답 해당자), ④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12년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형태, '22년 노인일자리사업, 회사, 기업, 자영업 하루 9시간 이상 응답 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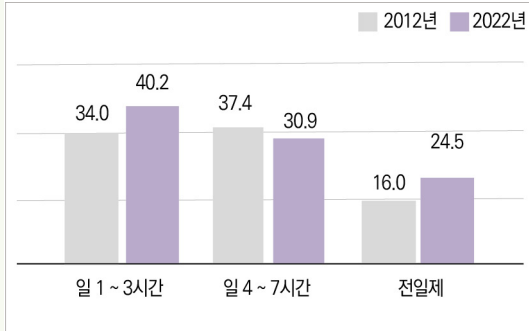
- 60~74세는 75세 이상 집단보다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7.1배, 일 4~7시간 희망 비중이 1.7배 더 높음. 75세 이상은 일 3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1.7배 더 높음.
 - 60~74세 집단은 근로시간 수요 규모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10년 전보다 일 1~3시간, 전일제 희망 비율이 증가(6.6%p, 1.5%p)함. 반면 75세 이상 집단은 10년 전보다 일 4~7시간, 전일제 희망 비율이 감소(-23.4%p, -5.1%p)하였고, 일 1~3시간 희망 비율이 증가(38.6%p)함.
- ▷ (희망 근로시간: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민간사업체 희망 근로시간은 각각 일 1~3시간(66.3%, 38.3%), 일 4~7시간(26.2%, 37.3%), 전일제(6.2%, 21.4%) 순임.
- 고졸 이상은 중졸 이하 집단보다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3.5배 더 높으며, 중졸 이하는 일 3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1.7배 더 높음.
 - 고졸 이상 집단은 근로시간 수요 규모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10년 전보다 전일제(5.3%p), 일 1~3시간(2.2%p)을 희망하는 비율이 늘었음. 반면 중졸 이하 집단은 10년 전보다 일 1~3시간(25.7%p) 희망 비중이 늘었고, 일 4~7시간, 전일제 희망 비율은 감소(-9.2%p, -6.4%p)함.
- ▷ (희망 근로시간: 사업유형별) '22년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향후 희망 근로일수는 일 1~3시간(79.9%), 일 4~7시간(18.7%), 전일제(1.2%) 순임.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자는 일 4~7시간(40.9%), 일 1~3시간(33.9%), 전일제(21.7%) 순으로 나타남.
- 공익활동 참여노인은 그 외 사업유형 참여자보다 일 1~3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2.4배 더 높으며,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노인은 일 4~7시간, 전일제 근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2.2배, 18.1배 더 높음.
 -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노인의 경우, 근로시간 수요 규모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가운데 10년 전보다 일 1~3시간(13.1%p)을 희망하는 비율이 늘었음. 공익활동 참여노인은 10년 전보다 일 1~3시간(34.7%p) 희망 비중이 늘고, 일 4~7시간, 전일제 희망 비율은 감소(-16.4%p, -8.2%p)함.

[그림 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희망 근로시간('12, '22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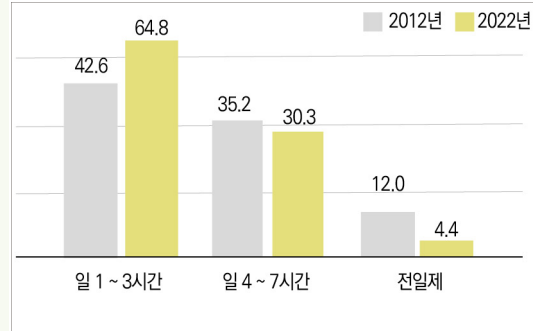
<희망 근로시간 (남성)>

(n='12년 682, '22년 1,149, 단위: %)



<희망 근로시간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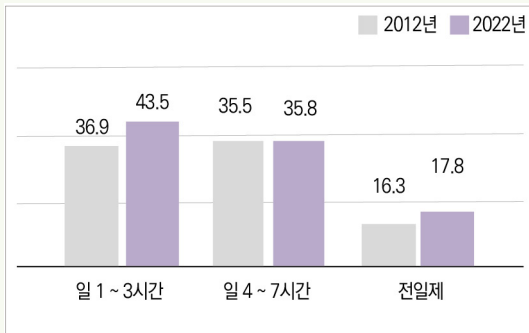
(n='12년 1,282, '22년 1,867, 단위: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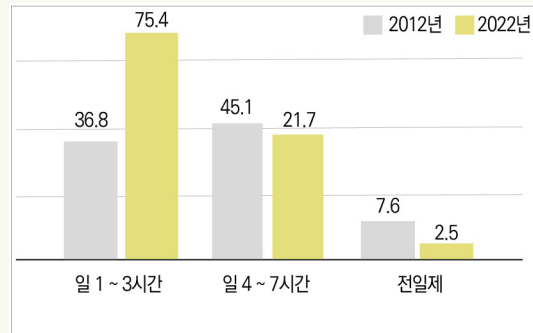
<희망 근로시간 (60~74세)>

(n='12년 1,297, '22년 1,890, 단위: %)



<희망 근로시간 (7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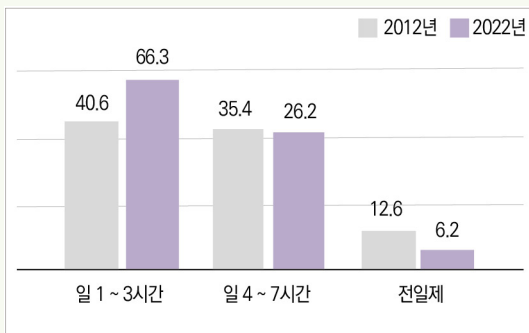
(n='12년 668, '22년 1,126, 단위: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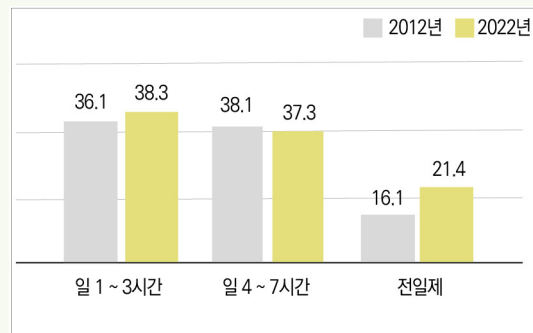
<희망 근로시간 (중졸 이하)>

(n='12년 1,550, '22년 1,845, 단위: %)



<희망 근로시간 (고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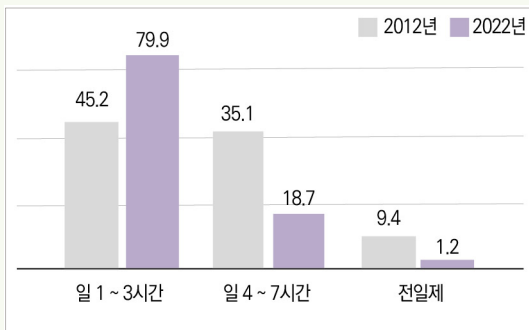
(n='12년 415, '22년 1,171, 단위: %)



사업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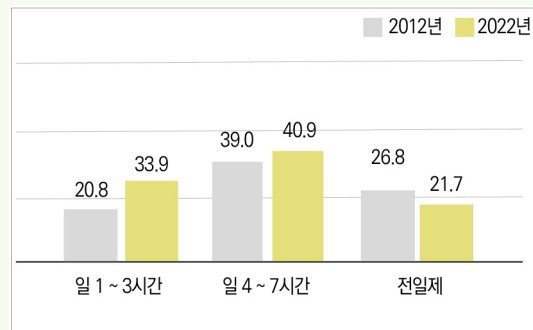
<희망 근로시간 (공익활동)>

(n='12년 1,514, '22년 1,410, 단위: %)



<희망 근로시간 (공익활동 외)>

(n='12년 451, '22년 1,606, 단위: %)



4) 희망 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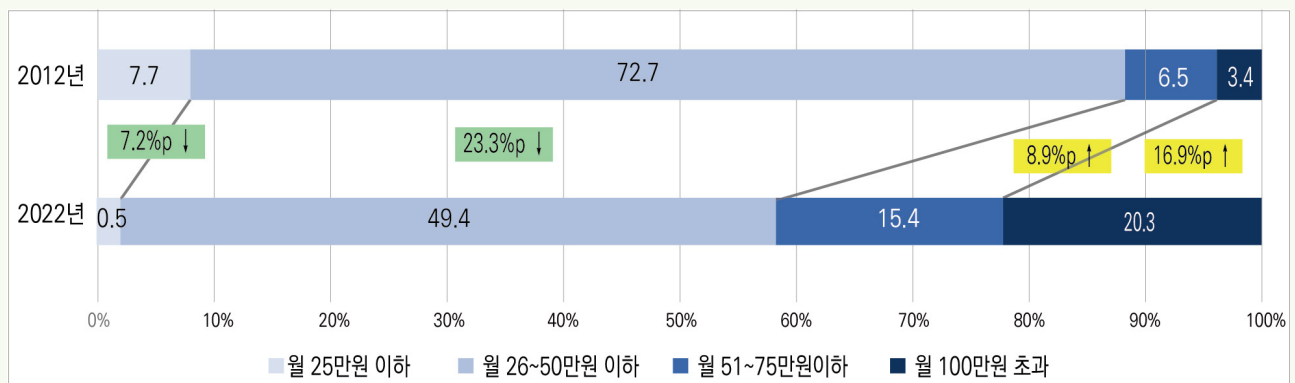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향후 희망 급여액⁷⁾은 구간별로 '월 26~50만 원 이하' 49.4%, '월 100만 원 초과' 20.3%, '월 51~75만 원 이하' 15.4%, '월 25만 원 이하' 0.4% 순임. 이처럼 낮은 급여대와 높은 급여대 두 종류의 선호 집단으로 양분되는 다봉(multi-peaked)형 선호 특성을 보임([그림 13], <표 5> 참조).

▷ 10년 전보다 낮은 급여대 선호는 감소, 높은 급여대 선호는 증가하였음. '월 25만 원 이하', '월 26~50만 원 이하'는 각각 10년 전보다 7.2%p, 23.3%p 감소했으며, '월 51~75만 원 이하', '월 100만 원 초과'는 각각 8.9%p, 16.9%p 증가함

▷ '22년 참여노인의 희망 급여액은 월 79.28만 원(SD=64.66)으로 10년 전('12년 월 47.35만 원 (SD=28.58))보다 31.93만 원 증가함(t=23.782, p<.001).

[그림 13] 희망 급여액('12, '22년)

(n=4,981, 단위: %, 만 원)



<표 5> 향후 노인일자리사업(또는 민간사업체) 희망 급여액

(n=4,981, 단위: 만 원)

구분		전체	2012년 (n=1,965)	2022년 (n=3,016)	t (2022년)
전체 (sd)		66.68 (55.65)	47.35 (28.58)	79.28 (64.66)	23.782***
성별	남성	88.68 (72.87)	54.21 (33.84)	109.08 (81.60)	18.535***
	여성	53.92 (37.02)	43.73 (24.60)	60.94 (42.15)	
연령별	60~74세	79.21 (62.68)	50.70 (31.96)	98.75 (70.59)	27.319***
	75세 이상	44.47 (29.19)	40.88 (18.92)	46.60 (33.68)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54.37 (41.10)	45.54 (26.48)	61.79 (48.99)	-18.069***
	고졸 이상	93.03 (71.37)	54.11 (34.54)	106.83 (75.84)	
사업유형별	공익활동	41.83 (23.03)	42.38 (22.88)	41.25 (23.18)	-38.218***
	그 외	101.98 (67.98)	63.99 (37.95)	112.67 (70.69)	

주: * p<.05, ** p<.01, *** p<.001

자료: 각 연도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7) '12년 문항 I7-4 "희망하는 급여수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22년 문항 A5-1, A5-2 "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월보수(수단) 몇 만 원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노인일자리가 아닌 민간사업체 등에서 월급여를 몇 만 원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응답범주) '12년 월 __만 원,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월 급여 __만 원, 회사, 기업, 자영업 등을 통해 월 급여 __만 원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 급여액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14] 참조).

▷ (희망 급여액: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남성노인의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민간사업체 희망 급여액은 구간별로 월 100만 원 초과(37.0%), 월 26~50만 원(36.6%), 월 75~100만 원(14.4%), 월 51~75만 원(11.7%), 월 25만 원 이하(0.3%) 순임. 여성 노인의 경우 월 26~50만 원(57.3%), 월 51~75만 원(17.7%), 월 75~100만 원(14.5%), 월 100만 원 초과(10.0%), 월 25만 원 이하(0.6%) 순임.

- '22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월 100만 원을 초과한 급여를 희망하는 비중이 3.7배 더 높음. 여성은 월 26~50만 원 이하 급여를 희망하는 비중이 1.6배 더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급여액은 남성 월 109.08만 원(SD=81.60), 여성 월 60.94만 원(SD=42.15)으로 남성이 월 48.14만 원 더 높게 희망함($t=18.535$, $p<.001$).

- 10년 전보다 월 26~50만 원 급여를 희망하는 비중은 남녀 각각 감소(-30.3%p, -18.5%p)함. 반면 월 51~75만 원, 월 75~100만 원, 월 100만 원 초과 급여를 희망한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월 100만 원 초과 급여를 희망하는 남녀 비중이 크게 증가(29.4%, 8.8%)함.

▷ (희망 급여액: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0~74세 집단의 희망 급여액은 구간별로 월 26~50만 원(32.8%), 월 100만 원 초과(29.8%), 월 75~100만 원(18.8%), 월 51~75만 원(18.1%), 월 25만 원 이하(0.4%) 순임. 75세 이상 집단은 월 26~50만 원(77.2%), 월 51~75만 원(10.8%), 월 75~100만 원(7.0%), 월 100만 원 초과(4.3%), 월 25만 원 이하(0.7%) 순임.

- '22년 60~74세 집단은 75세 이상 집단보다 월 75~100만 원, 월 100만 원 초과 급여를 희망하는 비중이 각각 2.7배, 6.9배 더 높음. 75세 이상 집단은 월 26~50만 원 희망 비중이 2.4배 더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급여액은 60~74세 월 98.75만 원(SD=70.59), 75세 이상 월 46.60만 원(SD=33.68)으로 60~74세 집단에서 월 52.15만 원 더 높게 희망함($t=27.31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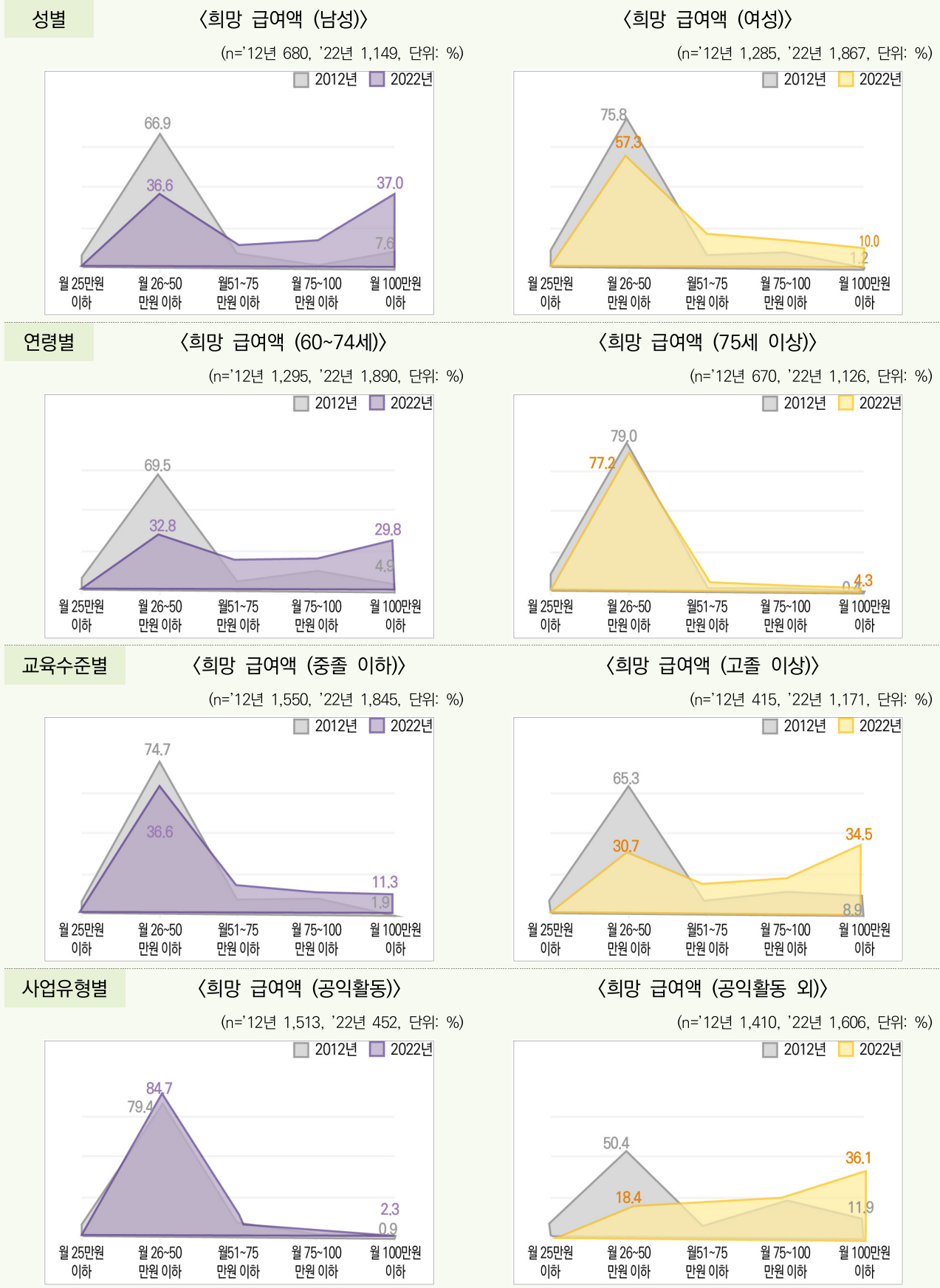
- 10년 전보다 60~74세, 75세 이상 집단 각각 월 25만 원 이하(-7.3%p, -6.9%p), 월 26~50만 원(-36.7%p, -1.8%p) 희망 비율이 감소함. 반면 월 51~75만 원(11.5%p, 4.5%p), 월 75~100만 원(6.8%p, 1.8%p), 월 100만 원 초과(24.9%p, 3.9%p) 비율이 증가함.

▷ (희망 급여액: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졸 이하 집단의 향후 희망 급여액은 구간별로 월 26~50만 원(61.2%), 월 51~75만 원(15.1%), 월 75~100만 원(12.0%), 월 100만 원 초과(11.3%), 월 25만 원 이하(0.4%) 순임. 고졸 이상 집단의 경우 월 100만 원 초과(34.5%), 월 26~50만 원(30.7%), 월 75~100만 원(18.2%), 월 51~75만 원(16.0%), 월 25만 원 이하(0.6%) 순임.

- '22년 고졸 이상 집단은 중졸 이하 집단보다 월 100만 원 초과 급여를 희망하는 비중이 3.1배 더 높음. 중졸 이하 집단은 월 26~50만 원 희망 비중이 2배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급여액은 중졸 이하 월 61.79만 원(SD=48.99), 고졸 이상 월 106.83만 원(SD=75.84)으로 고졸 이상 집단에서 월 45.04만 원 더 높게 희망함($t=-18.069$, $p<.001$).
 - 10년 전보다 중졸이하, 고졸이상 집단 각각 월 25만 원 이하(-7.4%p, -6.7%p) 희망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월 51~75만 원(2.1%p, 14.1%p), 월 100만 원 초과(1.4%p, 24.2%p) 희망 비율은 증가함.
- ▷ (희망 급여액: 사업유형별) '22년 공익활동 참여노인의 희망 급여액은 구간별로 월 26~50만 원(84.7%), 월 51~75만 원(8.2%), 월 75~100만 원(4.5%), 월 100만 원 초과(2.3%), 월 25만 원 이하(0.4%) 순임.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자의 경우 월 100만 원 초과(36.1%), 월 75~100만 원(23.1%), 월 51~75만 원(21.8%), 월 26~50만원(18.4%), 월 25만 원 이하(0.6%) 순임.
- '22년 공익활동 참여자는 그 외 사업유형 참여자보다 월 26~50만 원 희망 비중이 4.6배 더 높음. 공익활동 외 다른 유형 참여자는 월 100만 원 초과, 월 75~100만 원, 월 51~75만 원 희망 비중이 각각 15.7배, 5.1배, 2.7배 더 높음.
 - '22년 평균 희망 급여액은 공익활동 참여자 월 41.25만 원(SD=23.18), 그 외 다른 유형 참여자 월 112.67만 원(SD=70.69)으로 공익활동 외 다른 유형 참여자 집단이 월 71.42만 원 더 높게 희망함($t=-38.218$, $p<.001$).
 - 10년 전보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월 26~50만 원 희망 비중이 증가(5.3%p)하였음.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자는 월 26~50만 원 희망 비중이 대폭 감소(-32.0%p)한 반면 월 100만 원 초과 희망 비율이 증가(24.2%p)함.

[그림 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희망 급여액('12, '22년)



4. (2022년) 희망 근로일수×근로시간 특성 분석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교차하여 살펴봄. 그 결과, '주3일×일3시간 이하', '주3일×일4시간 이상', '주5일×일3시간 이하', '주5일×일4시간 이상' 등 네 개 집단이 주요 수요로 파악됨 (<표 6> 참조).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희망 근로일수는 주3일(43.9%)과 주5일(42.5%)로 좁혀짐.

- 희망 근로시간과의 교차분석 결과, '주3일 근무하면서 일3시간 이하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977명으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주5일 근무하면서 일4시간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740명, '주5일 근무하면서 일3시간 이하 근무' 528명, '주3일 근무하면서 일4시간 이하 이상' 316명 순으로 나타남.

<표 6> 향후 희망 근로일수*시간

(n=3,016, 단위: 명, %)

구분	전체	시간						
		주1일	주2일	주3일	주4일	주5일	주6일	주7일
일 3시간 이하	1,672	12	63	977	85	528	4	3
일 4시간 이상	1,286	15	36	316	130	740	44	5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58	3	2	32	3	13	5	-
합계	3,016 (100.0)	30 (1.0)	101 (3.3)	1,325 (43.9)	218 (7.2)	1,281 (42.5)	53 (1.8)	8 (0.3)

자료: 2022년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 주요 집단으로 도출된 '주3일×일3시간 이하', '주3일×일4시간 이상', '주5일×일3시간 이하', '주5일×일4시간 이상'의 네 개 집단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표 7> 참조).

▷ (성별) '주3일×일3시간 이하', '주3일×일4시간 이상', '주5일×일3시간 이하', '주5일×일4시간 이상' 각 네 개 집단의 남성 비율은 24.9%, 36.4%, 30.9%, 55.7%, 여성 비율은 75.1%, 63.6%, 69.1%, 44.3%를 차지함.

- 남성은 '주5일×일4시간 이상'을, 여성은 '주3일×일3시간 이하'를 높게 선호하며, 희망 근로일수 및 시간의 네 집단에 따른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1).

▷ (연령별) 각 네 개 집단의 60~74세 비율은 37.3%, 65.2%, 73.3%, 84.9%, 75세 이상 비율은 62.7%, 34.8%, 26.7%, 15.1%임. 60~74세는 '주5일×일4시간 이상'을, 75세 이상은 '주3일×일3시간 이하'를 높게 선호함.

- 희망 근로일수 및 시간 네 집단별 평균연령을 분석한 결과, '주3일×일3시간 이하', '주3일×일4시간 이상', '주5일×일3시간 이하', '주5일×일4시간 이상' 각각 76.23세(SD=5.72), 72.21세(6.21), 71.91세(5.38세), 68.39세(5.65)로 나타남.

- 희망 근로일수 및 시간의 네 집단에 따른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1$), Scheffe 사후 검정 결과 '주3일×일3시간 이하', '주3일×일4시간 이상', '주5일×일3시간 이하', '주5일×일4시간 이상' 순서대로 연령이 낮았음.

〈표 7〉 향후 희망 근로일수*시간 집단별 특성

(n=2,561, 단위: 명, %)

구분	전체	주 3일	주 3일	주 5일	주 5일	χ^2 / F (Scheffe)
		일3시간 이내 ^{a)}	일4시간 이상 ^{b)}	일3시간 이내 ^{c)}	일4시간 이상 ^{d)}	
전체	2,561(100.0)	977(100.0)	316(100.0)	528(100.0)	740(100.0)	
성별						
남성	933(36.4)	24.9	36.4	30.9	55.7	181.754***
여성	1,628(63.6)	75.1	63.6	69.1	44.3	
연령						
60~74세	1,585(61.9)	37.3	65.2	73.3	84.9	270.183*** (a>b>c>d)
75세 이상	976(38.1)	62.7	34.8	26.7	15.1	
평균(세)	72.85(6.53)	76.23(5.72)	72.21(6.21)	71.91(5.38)	68.39(5.65)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80(61.7)	79.0	58.2	60.4	41.2	257.345***
고졸 이상	981(38.3)	21.0	41.8	39.6	58.8	
최장 종사직업						
관리, 사무	375(17.7)	10.8	20.8	17.4	24.4	65.438***
서비스, 판매	608(28.6)	28.1	27.8	30.4	28.4	
기능, 농림어업	702(33.1)	37.3	32.2	27.6	32.1	
단순노무, 기타	438(20.6)	23.8	19.2	24.6	15.1	
사업 유형						
공익활동	1,218(47.6)	85.2	44.6	30.7	11.2	1007.092***
그 외	1,343(52.4)	14.8	55.4	69.3	88.8	

주: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2022년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원자료

- ▷ (교육수준별) 각 네 개 집단의 중졸이하 비율은 79.0%, 58.2%, 60.4%, 41.2%, 고졸 이상은 21.0%, 41.8%, 39.6%, 58.8%를 차지함.
 - 고졸 이상은 '주5일×일4시간 이상'을, 중졸 이하는 '주3일×일3시간 이하'를 높게 선호하며, 희망 근로일수 및 시간의 네 집단에 따른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 < .001$).
- ▷ (최장 종사 직업) 각 네 개 집단의 '관리, 사무직' 비율은 10.8%, 20.8%, 17.4%, 24.4%, '단순노무, 기타' 비율은 23.8%, 19.2%, 24.6%, 15.1%이며, '서비스, 판매직', '기능, 농림어업'은 유사한 비율을 띠.
 - '관리, 사무직'은 '주5일×일4시간 이상'을, '단순노무, 기타'는 '주3일×일3시간 이하'를 높게 선호하며, 희망 근로일수 및 시간의 네 집단에 따른 최장 종사 직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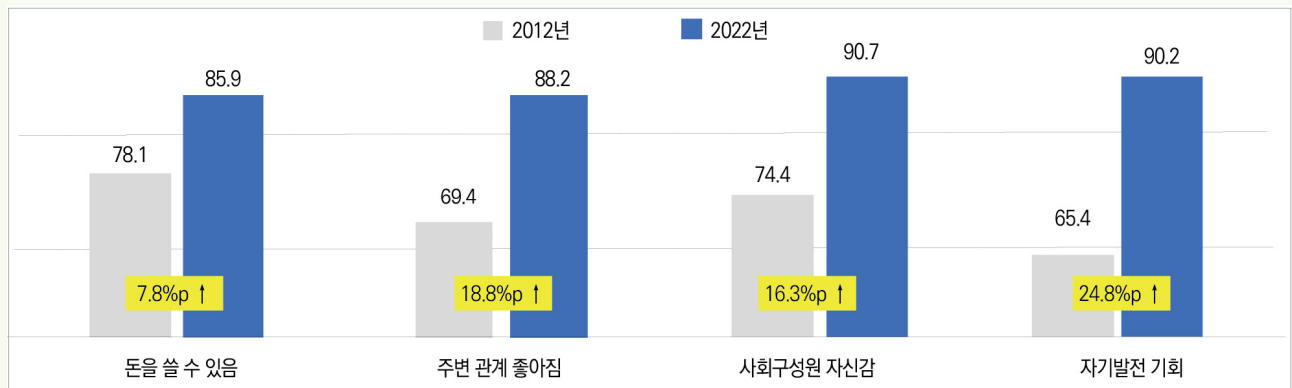
- ▷ (사업유형) 각 네 개 집단의 공익활동 참여자 비율은 85.2%, 44.6%, 30.7%, 11.1%, 공익활동 외 다른 사업 유형 참여자 비율은 14.8%, 55.4%, 69.3%, 88.8%를 차지함.
 - 공익활동 참여자는 '주3일×일3시간 이하'을, 공익활동 외 사업유형 참여자는 '주5일×일4시간 이상'를 높게 선호하며, 희망 근로일수 및 시간의 네 집단에 따른 참여 사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 < .001$).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

-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⁸⁾ 의견이 85% 이상 높음. 각 항목별로는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85.9%,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88.2%,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90.7%,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90.2%로 긍정적 의견(그렇다+매우그렇다)이 도출됨 ([그림 15] 참조).
- ▷ 10년 전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의견이 더 증가함.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에 24.8%p 증가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8.8%p,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16.3%p,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7.8%p 증가함.

[그림 1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변화('12, '22년)

(n=5,08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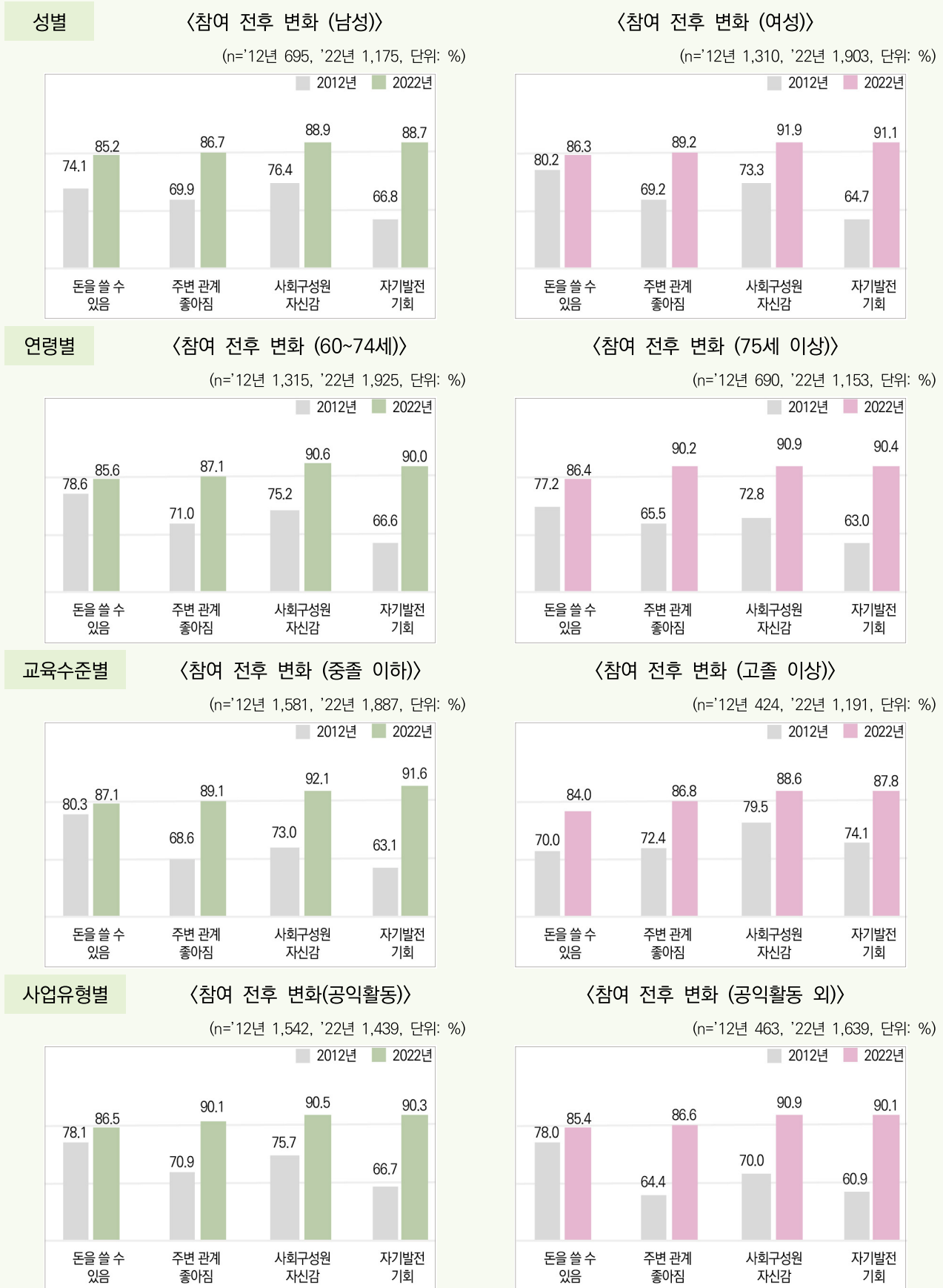


- ▣ 지난 10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를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참여 사업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음([그림 16] 참조).
- ▷ (참여전후 변화: 성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 의견은 남, 여 모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88.9%, 9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88.7%, 91.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86.7%, 89.2%,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85.2%, 86.3% 순을 보임.

8) '12년 문항 J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에 비하여 참여 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22년 문항 A11 "2022SUS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비교하여 다음 각 항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세부문항) ① 돈을 쓸 수 있음('12년 금액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었다, '22년 참여 이전에는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② 주변 관계 좋아짐('12년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22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③ 사회구성원 자신감('12년 아직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2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④ 자기발전 기회('12년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22년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 (해당응답 포함) '12년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10년 전보다 남녀 모두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에 21.9%p, 26.4%p가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띠.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6.8%p, 20.0%p,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12.5%p, 18.6%p,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11.1%p, 6.1%p 순으로 증가함.
- ▷ (참여전후 변화: 연령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 의견은 60~74세, 75세 이상 집단 모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90.6%,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90.0%, 90.4%,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87.1%, 90.2%,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85.6%, 86.4% 순을 보임.
- 10년 전보다 60~74세, 75세 이상 모두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에 23.4%p, 27.4%p가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띠.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6.1%p, 24.7%p,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15.4%p, 18.1%p,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7.0%p, 9.2%p 순으로 증가함.
- ▷ (참여전후 변화: 교육수준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 의견은 중졸 이하, 고졸 이상 집단 모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92.1%, 88.6%로 가장 높았음. 그 다음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91.6%, 87.8%,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89.1%, 86.8%,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87.1%, 84.0% 순을 보임.
- 10년 전보다 중졸 이하, 고졸 이상 모두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에 28.5%p, 13.7%p가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띠.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20.5%p, 14.4%p 순으로 증가함. 중졸 이하 집단은 그 다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19.1p,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6.8%p 순으로 증가하였음. 반면 고졸 이상 집단은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14.0%p,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9.1%p 순으로 증가함.
- ▷ (참여전후 변화: 사업유형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 의견은 공익활동, 그 외 유형 참여 집단 모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90.5%,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90.3%, 90.1%,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90.1%, 86.6%,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86.5%, 85.4% 순을 보임.
- 10년 전보다 공익활동, 그 외 유형 참여 집단 모두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에 23.6%p, 29.2%p가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띠. 그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19.2%p, 22.2%p,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14.8%p, 20.9%p,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8.4%p, 7.4%p 순으로 증가함.

[그림 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 참여 전후 변화('12, '22년)



나가며

- ▣ 본고는 '12년,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 10년 전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 및 의식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를 확인함.
- ▷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로는 '가족, 이웃 등'이 가장 많으며, 10년 전보다 '가족, 이웃 등', '유튜브, 인터넷 정보'에 의한 참여가 증가함. 10년 전보다 지인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1.7배 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튜브,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한 참여도 1.3배 증가함. 반면에 기관 담당자 및 공무원 등을 통한 참여는 1.6배 줄어들었음. 즉 10년 전에는 노인일자리 정책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공식적인 매체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 노인 개인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보습득 채널의 중심축이 이동하였음.
- ▷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최장 종사직업은 '기능 및 농업·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10년 전보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가 늘고, '단순노무직'은 감소함. 최장 고용형태는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고 10년 전보다도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감소함. 즉 10년 전보다 주된일자리 경험이 있는 노인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식·기술을 요하는 근로 경험을 가진 고령층이 사업 참여자로 유입되고 있음.
- ▷ 셋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향은 94.5%로 매우 높고, 10년 전보다도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사업체 근로 등 희망 비중이 증가함. 희망 근로일수는 평균 주 3.93일을 희망하고, 10년 전보다 평균 0.11일 감소함. 희망 근로시간은 '일 1~3시간', '일 4~7시간'으로 크게 나뉘며, 지난 10년간 '일 1~3시간' 희망 비중이 더 늘었음. 희망 급여액은 '월 26~50만 원 이하', '월 100만 원 초과'로 양분되며, 10년 전보다 희망 월 급여액이 31.93만 원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넷째, 희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교차한 결과, 주요 선호 집단은 '주3일×일3시간 이하', '주3일×일4시간 이상', '주5일×일3시간 이하', '주5일×일4시간 이상' 등 네 집단으로 다봉(multi-peaked)형 선호 특성을 보임. 제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근로 참여일수와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일률적으로 낮은(또는 높은) 활동 양·강도를 희망하지 않으며,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임.
- ▷ 다섯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긍정적 변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10년 전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의견이 증가하였는데,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90.2% (+24.8%p),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88.2%(+18.8%p),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90.7%(+16.3%p), '이전에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다' 85.9%(+7.8%p) 순으로 증가함. 특히 '자기발전의 계기'라는 응답이 10년 전보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 이에 노인일자리사업의 가치가 단순히 노년기 경제적 수단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일자리사업을 경험한 노인들 스스로 말해주고 있음.

▣ 위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실천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 ▷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층의 특성을 고려해 다각적인 정보접근성(information accessibility) 제고 노력이 요구됨.
- 본 조사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로는 주로 개인의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한 경우가 대다수였음. 이는 곧 지역 내 노인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임. 직접일자리사업이 민간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로서 참여자의 반복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적 특성을 고려해 3년 간 감점 없이 반복참여를 허용함(고용노동부, 2023). 이에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시행 연차가 늘고 사업규모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을 가진 노인이 늘고 있으며, 노인 개인의 노인일자리사업 경험 연차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임.
 - 노년기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에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고령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함. 특히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지역공동체 약화로 사회적 자본이 감소됨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취약한 노인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따라서 개인의 정보활용 역량이나 비공식적 관계망이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공식적 수단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이 없으나 정책요구도가 높은 노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지역 내 잠재 수요층의 특성과 지역 인프라 환경을 고려해 무분별한 디지털 전환을 지양하고, 찾아가는 노인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오프라인 정책 홍보가 필요함.
- ▷ 둘째, 노인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직무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 창출을 도모하도록 함.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70년 1,737만 명으로 '20년의 절반수준(4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21). 이에 국가 생산성 제고 및 노인부양비 등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고령자의 인적 자본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령차별금지,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본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10년 전보다 특정 지식, 기술을 요하는 다양한 주된일자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음.
 - 따라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인들이 지닌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동비(급여) 지급만을 목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선호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노무 성격의 활동 배치를 지양하고, 노인이 개인의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노인일자리 직무 개발이 요구됨.
- ▷ 셋째, 직무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재편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활동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노력이 요구됨.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민간형(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 크게 3개 유형, 세부적으로 7개 유형으로 구분됨. 각 사업유형에 따라 활동기간 및 활동량(활동일수 및 시간), 급여액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공익활동은 연 11개월의 기간 동안 일 3시간 이내(월 30시간 이상) 활동을 하며,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됨. 사회서비스형은 연 10개월 기간동안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활동을 하며, 월 60만 원 가량의 기본급 및 추가 수당을 지급 받음. 민간형의 경우 연중 참여하며, 근로일수와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따라 진행됨.

- 노인일자리사업 활동기간과 활동량, 급여역의 기준은 사업유형에 따라 단선적으로 정해져 있는 편임. 이에 각 사업유형별 정해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가 특정 사업유형에 속하게 되면, 자신의 선호와 무관하게 각 사업유형별 설계된 활동기간과 활동량, 급여액이 적용됨. 이에 현재의 구조에서는 더 적은 혹은 많은 활동량과 급여, 혹은 많은 활동과 급여를 원하더라도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을 직무 중심으로 재편하며, 해당 동일직무 사업유형 내 활동기간, 주기, 급여액 기준을 다양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적용 시 근로기준법 등 법적 사항과 예외사항 등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근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통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구조 수립, 전산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함.

- '22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승인 된 후 진행된 첫 번째 조사로서, 대기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유관기관 행정데이터 연계로 조사의 효율화 및 자료 신뢰성을 높이는 등 기존 대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기존 실태조사와 조사영역 및 조사 내용을 대폭 개편하면서, 과거의 조사결과와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도 일부 존재함. 본고는 '12년 실태조사 자료와 '22년 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자료 구성 과정에서 과거 존재했던 변수가 삭제되거나 응답범주가 변경 또는 통합되어 '22년 자료와의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자료가 있음을 발견함. 또한 금번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조사표 배치가 재구성됨에 따라, 과거 자료와 배치 순서가 달라 직관적인 자료 비교 및 자료 통합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 수립을 위한 노인일자리 관련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의 필요성은 더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단기적 안목에서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통계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구조 수립 및 통계자료 전산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3).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12.9., 보도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2012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2012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내부자료.